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장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람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와느니라
마태복음 4:17

이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300 ©2007 충청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다음 주일
제6차 성찬식
(1부~5부 예배 시)

어느덧, 8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빌 4:23) 좌절을 가진 우리는 조금만 밤샘한 감사와 평안보다는 근심과 걱정에서 짓눌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장에 흐르지 않아 주변의 환경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없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고, 세상에 찌든 독한 냄새만 풍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 재적질과 대못에 상처난 그리스도의 몸을 꺼려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답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 6:53)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제6차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자신의 심령을 채우고 있던 세상 것들을 모두 버리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요 14:27) 영원한 승리를 주십니다.(요 16:33) 은혜로 가득한 성찬식이 되도록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

***오늘, 제4차 학습 및 세례식이 찬양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세례세식은 갈릴릴, 오후 3:00)**

9월 교회 일정

- 2일(주일) 제6차 성찬식(1부~5부 예배 시)
2008년 제1차 CMTC 훈련1(찬양예배 후)
- 5일(수) 찬양위원의 헌신예배(수요2부 예배 시)
- 9일(주일) 교회설립 기념주일(가천연합예배 2·3부 예배 시)
교회설립 기념특별찬양(찬양예배 시)
교사 양성부·찬양대원 양성부 개강(오후 3:00)
2008년 제1차 CMTC 훈련2(찬양예배 후)
- 12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수요1부 예배 후, 여전도회)
수요성경공부 개강(오후 2:30, 저녁 8:30)
정기당회(수요2부 예배 후)
- 15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오후 2:00, 남전도회)
- 18일(화) 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 기도회(저녁 7:30)

믿음의 삶

루디아

(사도행전 16:6~15)

한 아시아의 작은 도시, 두아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전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로 보내어 사업을 하게 하시고, 마음을 빌립보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설교했고, 루디아는 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자가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여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때때로 매우 이상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항상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루디아! 그녀는 하나님이나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시기를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시아에 있는 두아라에서 자주적 천을 사다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제지를 받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바울에게 아시아 사람인 루디아를 보내셨습니다. 루디아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신이 헛것임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을 만나주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3) 루디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도 만나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루디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8)

루디아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습과 사상으로 온 가족을 예수님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녀와 그 집 식구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습다.(15절) 그녀는 주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 이웃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루디아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게로 인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사람이 육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는 자신의 영향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는 열심이 있었고, 그 결과 그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루디아는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간청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15절) 그 당시 이러한 간청은 결코 하기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네 도시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고, 로마 제국 전체가 루디아를 박해하고 있었습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루디아는 꾀박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살피고, 양식을 주며, 편파고, 자신의 믿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깊이 사랑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집에 와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전파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첫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루디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를 준비해 두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루디아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으로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오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루디아의 마음처럼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만 하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루디아의 삶이 곧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WHAT SHOULD YOU DO BEFORE JOINING THE LORD'S TABLE?

⁽²³⁾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²⁴⁾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 ⁽³³⁾So then, my brethren, when you come together to eat, wait for one another. ⁽³⁴⁾If anyone is hungry, let him eat at home, so that you will not come together for judgment. The remaining matters I will arrange when I come.

(1 Corinthians 11:23~34)

Before you come to the Lord's Table, you must carefully examine yourself. If you do not judge yourself rightly, then weakness, sickness, or death may come to you as a discipline by the Lord. If you do judge yourself rightly, then the Lord will not judge you. The Lord's Table is a special place where you share bread, the symbol of Christ's body, and the fruits of the vine, the symbol of His blood, with other Christians. It is not a means to salvation. It is not a meaningless formal ceremony. It is a communion of faith, designed by Jesus only for believers. You should not bring to the table anything unnecessary or useless. As such, please cautiously check your belongings before partaking. Do you know what kind of things you need to leave behind?

You need to leave all your guilt behind. After confessing your sins, Jesus forgives and cleanses you,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n. 1:9) Communion is the time to come in faith to Christ in remembrance of His past, present, and future actions. It is an evangelistic expression of your faith. It is a time for you to be refreshed and proclaim boldly His faithfulness. Before you partake of the bread and fruits of the vine, please search your heart sincerely, and confess your sins, so that you can be free from guilt, "But if we judged ourselves rightly, we would not be judged." (v. 31) Please judge yourself rightly, and leave all your guilt behind. Christ forgives all sins, so bring your forgiven self to His Table.

You need to leave all your grudges behind. The Lord's Table is about celebrating forgiveness. His death purchased your forgiveness, which you received by faith. You can forgive because you have been forgiven. Jesus praye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Lk. 23:34) You have never been wronged as He was wronged. Jesus forgave His crucifiers. Before you come to the Lord's Table, leave all your pride, envy, and secret enmity behind by forgiving those who have mistreated you. Come to His Table as a forgiver, not a condemner.

You need to leave all your bitterness behind. At the Lord's

Table, your eyes have a positive look and your heart has a good feeling. The message of Christ's cross removes bitterness. Jesus carried no bitterness despite His great suffering. 1 Peter 2:24 says, "and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so that we might die to sin and live to righteousness; for by His wounds you were healed." Seriously, how can you be bitter when Jesus endured such pain for you? How can you complain about anything when He has given you everything? Please focus on Jesus, so that you can have no bitterness anymore. Let go of your resentment, anger, and sour attitude. Jesus will fill you with His sweet peace. Come to His Table with a soft-hearted sweetness.

You need to leave all your burdens behind. Jesus cared enough to die for you. Why do you still want to carry something so heavy for no reason? Jesus carries enough to keep you day by day. Do you believe it? Do you know that He carries your burdens everyday and in every situation? Too many of you agree that Jesus carries burdens, but just not your particular one or not the everyday kind. The cross proves His love for you. Please trust Jesus Christ to carry all your burdens, all the time. He died for you, He loves you, and He will always take care of you more than enough. Please give up your anxiety and care, and cast it all on Him who cares for you, "casting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1 Pet. 5:7)

My dear friend, make this Communion meaningful. Do not come to the Lord's Table loaded down with guilt, grudges, bitterness, or burdens. Pick yourself up by letting go of these worthless and harmful practices. On this beautiful day, I want to see faces that have happiness, joy, and appreciation written all over them. Remind yourself of Christ's past justification, His present sustenance in this new life, and His pledge of your future blessedness and glory. The Lord's Table is not the way to salvation, but the result of salvation. If you have accepted Jesus Christ as your Savior in faith, then prudently examine yourself, confess your sins, and come to His Table today in celebration. Amen. 

다음 주일 설교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33) 그런즉 내 형제들이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34)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찌니

이는 너희의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경하리라 (고린도전서 11:23~34)



김성관 목사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펴야 합니다. 자신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주님의 징계로 연약함, 질병, 또는 죽음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자신을 신실하게 살핀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인 떡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인 포도주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예식입니다. 주의 만찬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인 예식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신자들을 위해 제정하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죄로 가득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앞서 진지하게 자신의 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까?

모든 죄책감을 버려라

우리는 모든 죄책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케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의 만찬은 복음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대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진지하게 살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31절) 자신을 신실하게 살펴보고 모든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보혈로 정함을 입은 몸으로 주의 만찬에 나아오십시오.

모든 원한을 버려라

우리는 모든 원한을 버려야 합니다. 주의 만찬은 죄 사함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시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여러분은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에 나아오기 전에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모든 교만과 시기, 감추어진 증오를 버리십시오.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로 주의 만찬에 나아오십시오.

모든 쓴 뿌리를 버려라

우리는 모든 쓴 뿌리를 버려야 합니다. 주의 만찬에 나아올 때 우리는 믿음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쓴 뿌리를 없애줍니다. 예수님은 그 큰 고통 중에도 결코 악한 말을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24는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런 고통을 참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한을 품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원망과 증오가 사라집니다. 분노와 화,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부드러운 평화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나아오십시오.

모든 짐을 버려라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아직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짐을 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짐이나 매일같이 일어나는 평범한 일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가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믿고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대보다 넘치게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제 근심과 걱정을 멈추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모두 맡겨버리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벧전 5:7)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만찬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죄책감과 원한, 쓴 뿌리, 무거운 짐을 진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 무가치하고 해로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이 아름다운 날에 여러분의 얼굴에 행복과 기쁨, 감사의 미소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미 여러분을 의롭다 하였고, 현재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시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을 미래에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만찬은 구원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먼저 신중하게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축하하는 주의 만찬에 믿음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

말씀의 승리

심판, 흰 보좌 (요한계시록 20:11)

빛모심의 사도 요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빛모심에 갇힌 사도 요한!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계시가 그에게 임한 것이다. 계시를 보던 그가 놀라운 간증을 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더 이상 깊이 설명하지는 못한다. 다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고 고백할 뿐이다. 그렇다. 주님의 보좌를 인간의 말로 어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으니 주님의 보좌 앞에는 땅과 하늘도 그 앞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권위와 영광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는가? 그래서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심판의 장소를 표현한다

은총의 시대에 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장차 올 세상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모든 불신자들이 요한이 본 저 흰 보좌 앞에 서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전에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서야만 한다. 심판의 보좌를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계 20:12, 13) 그 날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선하심이나 은총을 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로서 세계를 판단하시고 자신의 진실함으로서 백성을 판단하실 것이다. (시 96:13) 이 판단은 최종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없고 은혜도 없다. 은총의 보혈과 설리를 거역한 자들이 모두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은총의 구원을 무시한 죄

로 정죄되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히 12:24, 25)

심판의 시간은 분명히 온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구약의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이제 한 가지 남은 예언, 곧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말씀대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다. (벧후 3:7, 10, 12, 13) 그러므로 순식간에 없어질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라.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계 21:1)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를 맺도록 하자.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영원히 안전한 것이다. 주는 위대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기 때문이다. (시 102:25-27)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 마리같이 말리되 마치 포도나무의 잎의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의 마름 같겠으나 (사 34: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 51:6)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토록 소유할 것이다. (사 65:17, 18)

심판! 우리는 반드시 거역하야 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5:29) 십자가 앞으로 조용히 나아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15교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행 2:46)

15교구는 서초구의 반포와 방배지역의 238세대 581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개 지역, 20개 구역, 9개 남성구역 및 7개 전도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시무장로 4명, 안수집사 12명, 권사 15명을 비롯한 80여 명의 교구 일꾼들이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교구식구들을 겸손히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마 16:18)는 말씀에 순종하여 지역장을 중심으로 교구의 모든 식구들이 공회직과 교구모임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구모임은 매주일 오후 2시에 제1교육관 307호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교구모임 시에는 일꾼들이 돌아가면서 대표기도를 하며, 지역별, 전도회별, 남성구역장 특송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소속부서의 지체적식을 재고하고 있으며, 교구 소식지에는 지역별, 전도회별 기도제목을 수록하여 교구식구들이 일주일 동안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구일꾼들의 모임인 교구협의회와 지역장모임을 매월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여 지역별, 전도회별, 상호적 활동상황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교구의 중요사항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구의 현안들을 놓고 서로 기도하며, 진지한 토의와 대화를 통해 그것을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큰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구식구들의 연락처를 전산화하여 매주 금요일안침집 참석 권면을 비롯하여 각종 모임 공지 및 경조사 발생 시에 즉각 연락하여 많은 식구들이 주의

일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9월 2일에 있을 교구찬양을 위하여 온 교구가, 기도과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있으며, 9월 16일(주일) 총동원집회를 위하여 온 식구들이 태신자를 작성하여 품에 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

15교구 식구들은 모이면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흠어지면 선교와 전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차 청지기훈련 시에 많은 식구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으며, 교구식당 봉사 시 지원자가 너무 많아 일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일꾼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특히 장례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꾼들이 자기 일처리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슬픔을 당한 식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지금까지 단기선교에 많은 일꾼들이 자원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개 팀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구의 모든 식구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십자가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15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상성(성로, 15교구장)

우리 팀은 9명 아님, 10명!

떠나기 전까지 수술한 곳이 완전히 낫지 않아 인간적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말 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될 수 없다.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다. 성령님께서 귀 기울여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말씀은 연약한 저를 주님의 도구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축호전도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시다.

한 지역에서 가가호호를 돌며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임신부를 일부러 데려왔습니다. 우리들은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날은 정말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육신은 땀이 비오듯 했지만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동네의 회관에서 큰 노래소리가 흘러나왔고, 옆에는 남자가 섞여 카드를 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1960년대에도 보았을지언 모양머리의 아이스크림 장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팔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왜 그러고 그 영혼이 축복한지 눈물이 줄줄 흘러서 찬양을 제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강한 성령의 역사로 그 주변 사람들과 장사하는 아저씨의 기세가 확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저씨 만난 분은 두 손이 없는 아저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승려와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순간 우리들은 움찔했지만 성령이 충만해 있었기에 더욱 감하고 담담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나라에도 아주 못하는 것은 문맹인이 많아서 일일이 말씀을 읽어주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젊은이가 나타나서 대변을 해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전도를 할 때에는 빈정거리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성령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우리들을 도왔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열려와 근심이 있었지만 우리 아홉 명이 아닌 또 다른 한 분,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에 초대교회와 같이 내 것, 내 것이 아닌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김광혜(집사, 23교구)

선교는 주님께서 하신다!

건강에 자신이 없던 나는 선교가기를 좀 망설이다가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지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일단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선교 파송에 순종하였다. 정말로 많은 훈련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훈련은 결국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였고, 오직 기도만 하게 하였다. 그리고 주님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선교의 도구로 다듬으셨고, 선교지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한 학교 앞을 지나갈 때 수업 중이라 학생들이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팀장님을 따라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운동장에는 어린아이들이뿐이었다. “저쪽 아이들은 크네요.” 모든 것이 불가늑하게 보였던 그 때 성령님은 저의 눈을 돌려 다른 쪽을 보게하셨다. 교장실로 가서 겨우 허락을 받고 학교에서 정해준 교실로 향했을 때는 이미 열 반 아니 여러 전교생들이 몰려와 함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찬양을 했는데, 바로 그곳은 학교에서 만든 신당 옆이었다. 우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복음을 외쳤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때 전도지를 받기 위해서 한꺼번에 몰려드는 아이들을 위해서 현지어 처방기사까지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였다. 정말, 선교는 주님께서 하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강순옥(집사, 4교구)

지난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3(월) - 8월 21(화)	22교구	윤성철

◆ 주님의 크시고도 깊은 뜻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사도행전의 ‘행적대로 크고 비밀한 은혜의 사역’이었다. 설세 48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도 오직 예수, 예수님만 생각하며 말씀을 전했다. 회개하며, 감사하며, 오직 말씀과 찬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다. 선교를 통하여 나 자신이 더 큰 주님의 은총을 받은 것 같다. (전은희 집사)

우리를 기다리던 주의 택하신 백성

20, 18교구 연합팀

◆ 열악한 환경과 무더운 날씨, 무엇보다 온갖 우상숭배의 홍수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또 외치고 찬양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 얼마나 급하졌으면 두 달간 훈련을 거친 우리팀의 선교지를 급작스럽게 바뀌기면서까지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는지를 몸으로 체득하였다. 흠악에 거하고 있는 영혼들 속에서 도 주의 복음의 소식에 목말라 하며 우리를 기다리던 주의 택하신 백성이 있음에 감격, 감사하여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김병희 집사)

◆ 사역지가 바뀌고 팀원이 줄어들면서 남은 팀원들의 의욕도 마음도 약해지고 있었다. 우리들의 입술에는 불령이 늘어갔다. 바뀐 언어는 ‘왜 그렇게도 어렵기만 하던지!’ 그러나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자기부인하지 못했던 나를 주님은 회개케 하셨다. 그리고 바뀌어진 선교지를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다. (박국순 집사)

◆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 우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신

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구원키로 작정된 예비된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케 하셨다. (박경희 집사)

◆ 한 마을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와 찬양책자를 나눠주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나에게 무어라고 말을 했다. 나는 “전도지를 달라.”고 하는 줄 알았다. 그 어린아이는 찬양책자를 가리키며 “찬양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그 아이에게 찬양을 가르쳐주면서 다시 한 번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영접기도문을 따라하게 하였다. 그 아이의 맑고 순수한 눈망울에서 천국을 볼 수 있었다. (이성숙 집사)

◆ 한 학생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읽어주고 설명을 하였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임을 느낄 수 있었다. (공덕성 안수집사)

◆ 어느 마을은 주님이 특별히 선택한 마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노방전도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했으며, 어린 학생들이 찬양을 잘 따라했다. 반면에 어떤 마을에서는 입구에서부터 복음 듣기를 거절하여 바로 철수해야만 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마을 지도자들이 복음을 거절했다. 이같은 역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이정택 안수집사)



창세 전에 예정하신 십자가 복음

저는 강원도 동해 산촌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심하게 당하였습니다. 동네 훈장이신 아버님은 신발을 갈고 문을 잠그고 교회에 못 가게 지키셨고, 어떤 날은 물레 교회에 가다가 들켜 뺄때 바지랑때도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날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려면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또한 주변의 친구들도 "충현교회만 교회냐, 재테크도 하고 도시 외곽으로 가 보라."고 말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십자가의 복음은 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 16:24)

충현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참으로 달고 요만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사귀는 가족을 위하여 직접 요리한 어머니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느 8:6) 구약시대 제사장이며 율법학자이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과 영혼의 순종의 말이었습니니다. 금요찬양집회에서 은혜받기 위하여 되도록 저녁 식사를 거르면서 졸지 않으려 커피를 마신 뒤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면서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흐려지는 이 때에 우리 교회의 금요찬양집회처럼 말씀, 찬양, 기도가 균형잡힌 집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위임목사님께서 묵상 절고 오차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양육되는 충현의 성도들이아말로 주님께서 택하시어 붙들어서 기뻐하시는(사 42:1~4)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행복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남경자(권사, 2교구)

기적의 전도자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27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 부끄러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회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으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셨지만, 저는 늘 주님의 높고 넓은 사랑을 감사한다는 기도를 드리고는 있지만 열매 맺는 것이 별로 없기에 부끄럽고 복음에 빛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매우 병약합니다. 아내는 1990년부터 간염으로 투병중입니다. 현재는 간경변으로 악화된 데다 당뇨까지 와서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안일이 제 몫이 되었고, 간병은 물론 일 주일에 세 차례 받는 통원치료에도 꼭 동행하느라 저의 일상은 매우 바쁩니다.

저도 심혈관이 막혀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모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심혈관 시술을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2주 안에 흉부외과 수술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 더욱 기도하였고 지상에서의 천국찬찬인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찬양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천국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 후 20주가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간병과 지병으로 연약한 제가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여건상 선교는 도저히 할 수 없기에 전도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매일 둘째 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만큼은 지키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도 있지만 거의 무관심하고 심하면 인격 비하의 말을 건네며 비아냥거리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두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권하심을 믿기에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방전도를 마치고 돌아서는 그 순간은 세상과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기쁨과 활력으로 풍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용현(집사, 9교구)

Yes, U

Yes, U는 청년1부에서 주관하는 9월 8일 (토) 청년전도집회의 타이틀입니다. "그래, 바로 당신이야!"의 의미와 더불어 빠르게 읽으

면 [예:수리하고 읽혀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올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으며, "가라!"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이에 발맞추어 청년1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력팀을 중심으로 교회와 역삼역 주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며 청년1부가 한 생명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뻐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때론 자신이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더욱 극단적으로 복음을 외면하였습니다. 사탄의 방해와 그로 인한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전 1:17)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바로 너다.(Yes U)"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의지하라!"

4월1일 시작해서 9월 8일 전도집회를 향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한 복음의 역사를 소망하며 청년1부는 십자가 양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명이 넘는 태신자를 품고 8월 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역삼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강단에서 강복으로 그리고 서울과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온 세상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번져나갈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청년1부가 전도함으로 증인 공동체, 열매 맺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어 바로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명기 (청년1부)

뿌리내린 자원봉사

주님은 우리 교회에 자원봉사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많은 성도들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청소는 청소부가, 교회 앞뒤 화단은 미화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저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하였는지 주님 앞에 부끄러워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이곳 저곳에서 청소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의 교구에도 정성껏 걸레를 빨아 가져오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예루살렘 찬양 대 연습에 늦지 않으려고 일찍 오셔서 말쑥한 구역에 열심히 들고 닦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청소하는 것이 으레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자원봉사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가끔씩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들이 있지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여더를 가든 뿌리수거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집고 쓰레기 버릴 때에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갔던 곳에 예수님의 흔적만 남기를 원합니다.

김홍기(인수집사, 24교구)



수화 칼럼 ⑦ 주기도문 3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 뜻이



2. 하늘에서



3. 이룬



4. 것



5. 같이



6. 땅에서도



7.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

두아디아교회

(요한계시록 2:18~29)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본입니다.(23절) 특별히 여기서 “뜻”(네프스, 23절)이란 말의 기본 의미는 “신상” 곧 “코랄”인데 이는 사람의 가장 깊고 은밀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람이 제 아무런 남을 속이고 자기 자신까지 기만한다고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이처럼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 후 그에 따라 합당하게 갚아주시는 본입니다.

이세배의 거짓된 가르침과 자기의 욕심을 좇아 세상과 타협하여 우상숭배의 자리에 참석하여, 그 제사 음식을 먹고 음행까지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순결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그 죄악상을 파헤쳐서 이 세배와 더불어 여지없이 환난과 고통의 침상에 던질 것이요 영원히 사람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교도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여,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목숨까지 위태롭게 될지라도,

참으로 불꽃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主視) 같은 발을 가지신(18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각

주를 향한 신앙과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굳게 붙드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새벽 별의 흠과 악인들을 깨뜨리는 권세의 철장을 승리의 상급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녕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합당하게 갚아주시는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를 속이듯, 예수님을 속여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은 결코 사람에게 만들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갈 6:7)

모든 성도는 각자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겸허하게 서서 일거수 일투족을 순간순간 심판받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도는 잠시 잠깐의 세상의 유희이나 마음의 욕심을 좇지 아니하고, 당장은 힘들고 괴물이라도 예수님의 약속하신 바 그 영광된 상급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마 16:27) 세상과의 타협은 당장에는 현실적인 부나 즐거움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진리를 떠나 사망에 이르는 결과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끝까지 지켜 예수님께 올바른 제자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서머나교회 교인들처럼 비록 육체적 고통과 물질적 궁핍이 지금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잠자 주실 참된 부요함을 바라보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절개 있는 신앙인들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희석(목사, 7교구)



저는 2박 3일의 시간 동안 풍산 동신교회의 여름성경학교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이 사역에 대한 광고를 들었을 때, 저는 이미 교회학교 수련회 봉사를 하기로 했던 터라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에는 몸이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지체들의 권유로 저는 사역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친구들과 함께 하는 사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급기야 사역지에 가기 하루 전날, 마음이 상하여서 ‘그날 내일 사역을 가지 말까?’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결국 사역에 참여하였고 첫 날 사역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엉망이었습니다. 첫 날 저녁 사역 평가회를 할 때 이런 내 모습에 너무 분했고, 주님께 ‘이럴 거면 왜 저한테 이 사역을 주셨느냐?’고 기도했습니다. 안 오는 것만 못 했던 이 사역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저를 바꾸셨습니다. 주님께 짜증내고 화로 가득한 마음을 회개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 자신을 버리지 못 하고 기도하지 못 했던 저는 제 자신을 죽이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음 날 사역에서 저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리고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날 저녁의 세족식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기셨을 때를 생각하며 아이들의 발을 씻었고, 말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경청하는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앞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일군들로 성장할 것을 마음 속에 그렸습니다.

성종규(대학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64	돈상우	4	장년1부	
1365	한보은	4	장년1부	
1366	돈영재	4	중동1부	
1367	돈병진	4	고등부	
1368	장 백	2	청년1부	
1369	도르치	25	외선부	정웅숙(21)
1370	마혜원	25	외선부	최정철(16)
1371	송대준	7	청년2부	이진규(6)
1372	이명달	23	장년2부	이진규(6)
1373	김태균	12		김정현(24)
1374	박주리	3	장년1부	김연택(10)
1375	주성철	22	고등부	김성혜(22)
1376	이르름	25	외선부	
1377	사르깃	25	외선부	
1378	인드레이	25	외선부	이진희(16)
1379	나자	25	외선부	이진희(16)
1380	해리	25	외선부	유용열(6)
1381	한하나	22	청년1부	임충욱(22)
1382	한명옥	16	청년2부	전선재(16)
1383	김희하	4	유년부	
1384	이지윤	3	청년1부	
1385	리휘	25	외선부	이훈우(15)
1386	김혜운	17	대학부	김정애(7)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